

광주세계수영, U대회처럼 저비용 고효율로

월드챔피언십·마스터스 선수권 분리… 임시수조 설치·조직위 축소

광주시가 올해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이어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도 '저비용 고효율'로 치르기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월드챔피언십, 마스터스 선수권대회 시기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챔피언십대회를 마치고 곧바로 마스터스선수권대회를 치르거나, 챔피언십 후반에 마스터스를 개막해 일부 날짜만 겹치게 하는 방식이다.

2019년 7~8월 사이 열릴 예정인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전문 수영인들이 참석해 경연하는 월드챔피언십과 수영동호인이 참가하는 마스터스선수권대회로 나눠 진행된다.

월드챔피언십은 16일간, 마스터스선수권대회는 12일간 열린다. 시는 월드챔피언십에는 8000여명의 전문 수영인들이, 마스터스 선수권대회에는 전 세계 수영동호인 1만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선수들의 숙소 마련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2017년 행가리 부다페스트 대회 진행상황 등을 검토해 국제수영연맹(FINA)과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수영대회 선수촌은 계립 8구역 재개발과 송정 주공 재건축 지역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활용된다.

임시수조를 설치해 경영 종목이 치러질 주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비용 절감의

핵심 방안의 하나다. 시는 월드컵경기장, 김대중 컨벤션센터, 남부대 운동장 등을 임시수조 설치 장소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러시아 카잔 대회에서도 활용된 임시수조는 설치와 철거가 쉽고 비용도 경기장 신축보다 적게 든다.

시는 내년 6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경기장 위치를 확정하고 8000~1만 5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춘 수조 설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중·하반기 구성될 조직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슬립화하기로 했다. 종합 스포츠 제전인 유니버시아드에는 시 공무원 380명가량이 대회 운영에 관여됐지만, 수영선수권 파견 인원은 1단계로 35명, 최대 8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이처럼 예산절감에 나선 이유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총 소요 예산이 애초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대회운영비와 개최권료, 선수단 숙박비와 항공료 등 모두 1149억원으로 예상됐지만, 주경기장 후보 중 한 곳인 남부대 국제수영장·관중석을 세계수영연맹(FINA) 규정에 맞게 현재 3290석에서 1만 5000석으로 늘리거나, 새로 임시 수조를 설치하는 데만 550억원이 소요되는 등 총 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소 비용으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또 한 번의 기회로 삼겠다"며 "후원 유치활동도 활발히 해 최대 효과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강산·이산가족 이견…남북 당국회담 결렬

지난 11~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다뤘지만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며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남북은 11일 오전 10시40분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회담을 시작했지만 의제 설정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남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동(통행·통신·통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동시 해결 등 연계를 시도했다고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 차관이 설명했다.

남측은 금강산관광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언급하면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해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선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경직된 태도'를 보였다.

북한 핵 문제를 놓고도 양측은 극명한 견해차를 나타내며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선 핵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북측은 "핵 문제나 인권 문제 언급은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측이 신중했으면 좋겠다"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이후 5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하고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결국 실패했다.

남측은 차기 회담과 관련해 14일 당국 회담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남북당국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12일 오후 북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치른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결어오고 있다. 이번 남북회담은 합의사항 없이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종료됐다.

/연합뉴스

1면 '리뷰 2015-광주U대회 성공 개최'에서 계속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 공무원들과 차기 U대회 개최지인 대안 타이베이 공무원들이 광주 U대회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성공한 광주U대회를 배우기 위해 공을 들이기도 했다.

대회 기간 중 광주 도심은 세계 청년들의 '난장'으로 흥겨움과 즐거움이 넘쳐나면서 '젊은 도시' 광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제 광주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

회라는 '메가 이벤트'를 난겨놓고 있다. 2015 광주 U대회 성공을 밑거름 삼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저비용 고효율'과 시민참여 등을 통해 성공한 대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포스트(Post) 유니버시아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도시 각 분야의 대대적 업그레이드 운동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보물찾기 영상 김두연 '증도...' 최우수상

'2015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에서 목포에 거주하는 김두연(36·광주)씨의 '느낌의 증도에서의 보물찾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까지 8개월 동안 추진된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에 전국에서 56편의 다양한 영상이 출품, 2차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

지난 2008년에 이어 7번째로 개최된 이번 영상 공모전에서는 이전에 비해 학생들이

이 직접 촬영해 응모한 작품이 많았다.

우수상은 김장곤(65·광주) 씨의 '적려 유허비와 죽수서원', 박종서(34·서울) 씨의 '경험할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는 전남의 보물', 박현경(24·여수) 씨의 '걸을수록 깊어지는 금오도 비령길' 3편이, 장려상에는 우소희(17·목포 종양고) 양의 '남도의 쪽빛' 등 6편의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전남도 인터넷방송(<http://www.jntv.go.kr>)과 대표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농축산물 친환경·고급화로 FTA 파고 넘는다

'구제역 청정' 한우, 국내 첫 홍콩 수출 표고·전복·키위·쌀 등 亞·유럽 공략

표고, 전복, 키위, 쌀에 이어 전남산 한우가 14일 첫 수출길에 오른다. 지난 2000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한우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산 동수축산물이 좋은 맛, 엄격한 품질 관리, 브랜드 구축 등을 통해 FTA(자유무역 협정)의 파고를 넘어서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능협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한 52마리와 (주)죽림에서 도축한 8마리 등 모두 60마리의 한우고기는 육가공업체에서 가공포장돼 14일 항공편으로 홍콩에 수출된다.

국산 한우로는 처음으로 홍콩에 수출되는 전남산 한우고기는 홍콩에 도착한 뒤 열을 안팎의 현지 견여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전남산 한우고기의 홍콩 수출은 우리나라와 홍콩 간 견여위생협상에서 '1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수출 대상을 한정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지역은 구제역 견여를 시작한 지난 1934년부터 지금까지 정정지역을 출고 유지해왔다. 특히 전남산 한우는 풍부한 일조량을 받고 자란 양질의 조사료로 사육돼 품질이 우수하다. 조사료 자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EU FTA 전체 발효…문화협력 등 포함

지난 2011년 잠정 적용 상태로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13일부터 전제 발효된다.

EU는 회원이 28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FTA 협정을 체결할 때 절차상의 문제로 발효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 대개 잠정 적용 발효 방식을 활용한다. 이후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전체 발효가 이뤄진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때도 양측은 서명과 동의를 마친 뒤 7월 1일 잠정 적용 상태로 FTA를 발효시켰다. FTA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 공동 통상정책은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 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경 시
인문	신학과	19
사회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법	사회복지상담학과	3
예능	유아교육과	3
	음악과	5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드럼·架子鼓, 퍼포먼스, 악기제작, 악기설계, 악기교육	5
	실용음악학과	5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자 4명, 신학대학원 3명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15. 12. 24(목) ~ 30(수) •전형일 : 2016. 1. 5(화)

대학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대학원	과정	모집 학과	모집 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5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15. 12. 7(월) ~ 15(화)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제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뜻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기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재판,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착수금

영업사원 모집